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 주거 규모 516세대 걱정”

강 시장 “신세계와 사전 협의한 내용”
“광주 부동산 상황 고려 최소한 허용”
“제안서 제출하면 사업에 속도 낼 것”
신세계 “세대수 아닌 면적 협의한 것”

광주광역시와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과 관련, 주상복합시설 주거 규모에 대해 516세대가 적정하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9일 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의 주상복합 건립 기준인 516세대는 광주광역시와 신세계 간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도출된 결과”라고 말했다.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은 광주 서구 광천동 일대 터미널 부지를 대상으로 광주의 관문 역할을 재정립하고 상업·업무·주거 기능을 통합한 복합 랜드마크를 조

성하는 4조400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다.

신세계 측은 기존 광천터미널 부지에 백화점, 터미널 기능, 오피스, 호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을 포함한 ‘직주락(職住樂) 복합 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복합 단지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터미널 기능은 유지·확장하고, 주변 상권과 연계한 고급 상업시설·주거공간을 조성해 광주 도심 재생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23년 11월 신세계·금호그룹과 터미널 복합화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어 신세계는 지난해 8월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을 위한 개발계획안 검토 신청서(사업계획)를 제출했다.

사업계획에는 1단계 신세계백화점 확

장(2026~2028년), 2단계 문화·상업·업무·교육·의료시설과 특급호텔을 갖춘 터미널 복합시설 조성(2028~2033년), 3단계 주거복합시설 건립(2033~2037년)이 담겼다.

같은 해 8월 신세계 측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광주광역시는 관계 부서·외부 전문가들과 합동 TF 회의를 세 차례 개최하고,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받아 주상복합 건립 기준을 마련했다.

신세계는 해당 기준에 맞춰 개발 제안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상태였으며,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는 신세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통보했다.

광주광역시는 신세계 측이 협상 조건을 반영한 개발 제안서를 제출하면 ‘협상 조정협의회’를 구성해 본 협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세계 측이 아직 시에 제안서

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사업은 답보 상태에 놓였다.

신세계 측은 시의 요구대로 터미널·학교·병원·공연장·4~5성급 호텔 등을 함께 개발하려면 높은 투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해 주거 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이날 “516세대는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수치가 아니라, 신세계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정해진 것”이라며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5.2%에 이르고, 미분양 주택도 상당수 존재하는 광주의 부동산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주거시설만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세계 측에서 사전 협상 지침과 원칙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면 광주광역시는 신속·투명·공정 원칙에 따라 신속히 사업 조정 협의회를 통해 사업 계

획을 확정해 나갈 것이다”며 “개발 사업 신청 여부는 신세계 측에 달려있다. 신세계 측이 사전협상 논의에 기초해서 계획서 등을 제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광주시와 협의한 내용은 세대수가 아니라 주거면적 5만평에 대한 부분이다. 이후 공연장, 의료, 교육시설 등을 요청해 왔다”며 “지금은 세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면적 기준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다. 사업성을 위해 주거면적을 5만평에서 7만7000평으로 늘려달라고 시에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대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이해하기 쉽게 5만평 규모이면 516세대 정도로 추정하는 것”이라며 “주거 면적 확대가 안 된다면 공연장 규모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상아 기자 sangja.jeong@jnilbo.com

전남도, 여수석유화학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구

오늘 고용노동부에 신청서 제출
고용특수성 반영 제도개선 건의

전라남도는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신청을 지난 28일 심의·의결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석유화학 업종의 고용위기는 주요 대기업의 영업실적 악화로 플랜트 건설사업 발주액이 대폭 감소하면서, 여수지역 근로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노동자의 일감이 고갈돼 고용위기 상황으로 진입했다.

이에 전남도와 여수시는 ‘여수 석유화학 고용위기대응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노·사·민·정 분야별 관계자와 상호협력력을 통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는 일용 노동자의 일자리 위기 해소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임시적 생계비 지원, 재정지원 공공일자리 사업 등 일용 근로자의 고용 안정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로자는

△훈련연장 급여 △직업훈련비지원 확대 △생활안정자금 융자확대 등을 지원받게 된다.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전남도는 신청서 제출과 별개로 여수 노동시장의 고용 특수성을 반영해 일용근로자 감소 현황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 산업위기 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을 촉구할 방침이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지난해 말부터 여수 석유화학 산단의 공장 가동 일부 중단과 가동을 하락으로 기업 경영이 악화되고, 일용근로자부터 고용 감소가 진행 중”이라며 “여수 지역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선제적으로 여수 석유화학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한 대행, 국회 예결위 불참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본청 회의장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내일 오후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5월 1일 나온다.

대법원은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

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처럼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무등산을 걷자

제19회 무등산 사랑 등반대회

5월 24일 오전 8시30분

전남일보가 ‘제19회 무등산 사랑 등반대회’를 갖습니다.
광주광역시·화순군·담양군에 걸쳐 있는 무등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시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산행은 문빈정사 광장을 출발해 자율 산행으로 진행되며,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정화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자원봉사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무등산의 추억’을 담아가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 행사명 제19회 무등산 사랑 등반대회
- 일시 2025년 5월24일(토) 오전 08시30분
- 장소 문빈정사 앞 광장 (집결)
- 신청기간 2025년 4월22일(화) ~ 5월19일(월)
- 인원 300명 선착순 접수
- 참가자 전원 기념품 제공

- 참여방법 홈페이지(www.jnilbo.com) 접속,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문의 062) 519-0730~1
- 주최주관 전남일보·전일엔컬스
- 후원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교육청 화순군·담양군 전남대무등산권지질관광사업단